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이성구/정미라 선교사입니다.

한국, 특히 캐나다는 아직도 많이 춥겠네요. 여기는 지금 일년 중 제일 더운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땐 비도 오지않아서 땅뭍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정도가 되면 우기가 찾아와서 근 두달동안 매일 장대비가 내립니다. 아마 그때 나무들이 물을 깊숙히 빨아들여 비가 오지않을 날들을 대비하는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있는 곳을 찾아 통을 가지고 가서 길게 줄을 서서 받아가거나, 지하수물을 뽑아 파는사람들에게 가서 물을 사서 먹기도 합니다. 우물을 판다는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우물이 있더라도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워낙 비싸 이곳에선 우물을 가진 없두를 못내지요. 저희집에서도 가끔씩 물을 나누어줍니다. 물 호스를 밖에 들고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줄을서서 물을 받아 가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 주말에만 할수있습니다.



이성구 선교사는 공식적 겨울 방학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공휴일들을 제외하곤 계속 대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공과 대학 업무를 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중이었던 공학관은,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날 대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학교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도 교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는 재정과 교수확보 그리고 좋은학생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학교를 세우고 키운다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일인가를 새삼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미라선교사는 올해부터는,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무료로 다닐 수 있었으나, 1학년부터 정부에서 관할하고, 이곳 선교사님이 세우신 사립학교나 1학년은 매달 육만 실링기(약 40 북) 정도의 학비를 내야하므로, 많은 아이들이 좋은교육을 받고싶어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곳 현지인들이 한달에 버는돈이 십만 실링기 안팎이니 육만 실링기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큰돈입니다. 앞으로 공부해야될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칠수있는 학교를 세우는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역중의 하나이므로 기도하며 준비하고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현재 두명의 학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보살피며 사립학교에 다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공립학교가 있긴한데, 학교의 수준이 안가는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좋은 교육시스템이 없고, 선생님이 없고, 책상과 의자도 없습니다. 학교에 아이들만 바글바글하고 선생님이 몇명 없기때문에 그냥 노는수준입니다. 그냥 그렇게 몇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태반이라, 초등학교는 그럭저럭 졸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나라가 앞으로 변화하기위해선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교육을 시켜 그들의 정신을 깨우쳐 줄 때, 그들이 자라서 이나라를 이앞측에서 견져낼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생선을 거저 주는 일이 아니라, 생선을 잘 장을수있도록 가르치는일에 사역의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오랫동안 많은 선교사들과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거저 받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기만하는 선교, 혹은 그냥 받기만 하는 선교를 통해서선 아무것도, 혹은 아무도 변화시킬수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올바른 교육을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하메드나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대일양육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7살짜리 Najima (나지마) 라는 모슬렘 여자아이를 저희가정에서 한달반동안 함께 살게 하며 집중교육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아이들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공부에 뛰어나게 되었고,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뜬내 아이들보다 크게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7살밖에 안된 아이들이라든 좋은환경에서 좋은교육과함께 훈련시킨결과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딸이없고 웃음이 없었는데, 너무나 놀랐게 바뀌었습니다. 나지마는 지금 저희가 학교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어, 가능하면 대학에 갈 때까지 후원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데려오기전의 모습)



(후의 밝은 모습)

#### 앞으로의 계획

이번 4월달부터 학교사역외에 커뮤니티사역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중입니다. 현지인 교회들 빌렸으며, 그곳에서 모슬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자양육을위하여, 성경 공부 위주로 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사역과 관련하여, 후원자여러분들의 교육용품 및 생활 용품 도네이션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없는 오지에 교회를 세워 복음 전파와함께 아이들 교육도 시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이없어 당장은 시작하지 못하지만, 이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중순께 한달정도 캐나다 방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의 건강검진이 매우 시급하고, 이성구선교사 영주권연장문제라 후원자모집등,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 기도제목

1. 저희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는 스스로 영적인것을 채워야 하므로 자칫하면 영적인 위기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성경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이번 건강검진때 아무이상 없도록, 이를 잘 치료받을수 있도록, 또 이곳 풍토병인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안 걸리도록)
2. 이곳 사역을 위해 도네이션을 기다립니다. 특히 아이들 학용품이 필요하며 옷가지, 신발, 그리고 약품 종류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돈이없어 공부못하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할수도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3. 단기(6개월- 1년)로 오셔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단기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유치원, 초등, 중, 고등, 대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칠수있는 단기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지원해주십시오.

## 후원방법

캐나다:

수표: Pay to the order of: Toronto Korean Bethel Evangelical Church

For: 탄자니아 선교사 이성구/정미라 선교사앞.

주소: 1155 College Street, Toronto, Ontario M6H 1B7

한국:

국민은행 331337-04-002245 탄자니아 대학교 후원회

후원선교사: 이성구/이미라선교사앞.

탄자니아:

Exim Bank USD Account, Exim Bank SWIFT: EXTNTZTZ

UNIV Code 370780, Account number: 0081023829

Account Holder: Sungkoo Lee/Mira Lee

도네이션 물품을 보낼주소:

The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P.O. Box 36246

Dar es Salaam, Tanzania (이성구/이미라 선교사앞)